

## 켈수룩 커지는 제주잠녀·잠녀문화

7월 2~29일 도·문화재청 공동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숨비 소리'특별전 당초 물질작업 관련 민속자료 9점 등에서 해녀박물관 전시 자료 등 확대

등록 : 2012년 06월 29일 (금) 09:38:04 | 승인 : 2012년 06월 29일 (금) 09:40:52  
최종수정 : 2012년 06월 29일 (금) 09:40:2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mailto:popme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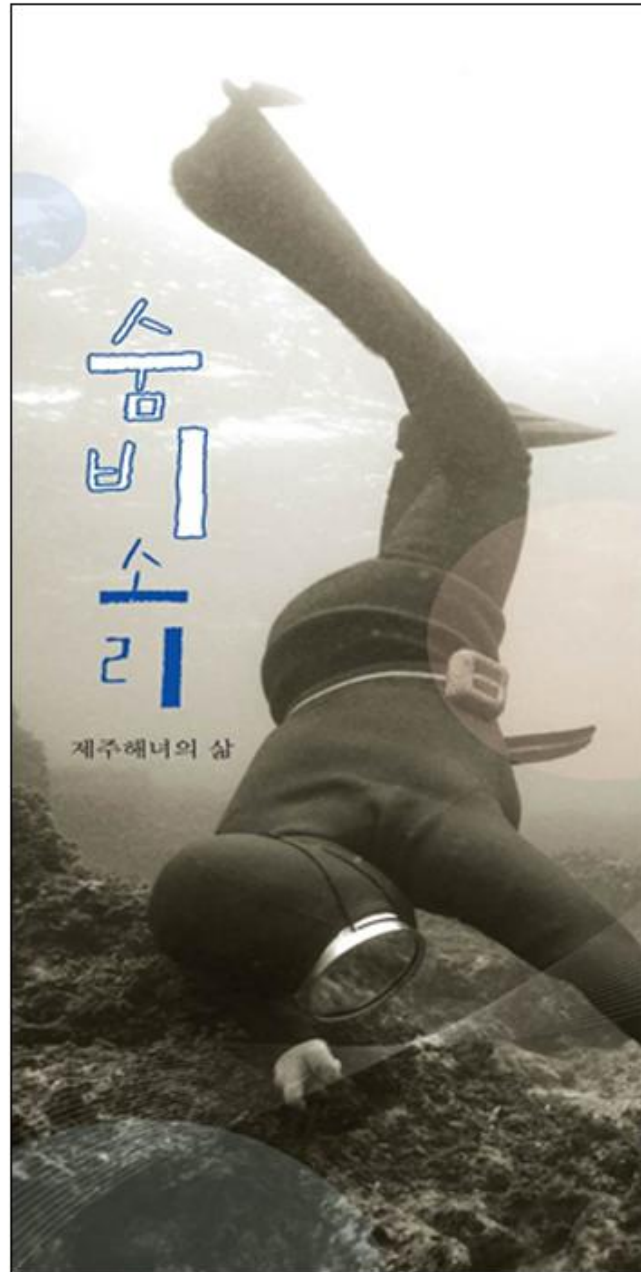
제주 잠녀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행낭이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다음달 2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숨비소리: 제주 해녀의 삶'특별전은 잠녀 문화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당초 공동전시 대표목록으로 알려졌던 2008년 제주도 민속자료 10호로 지정된 잠녀 물뿔과 물질도구 15점 중 물질작업과 직접 관련된 9점과 사진자료 30여점 외에 잠녀 문화와 관련된 해녀 박물관 소장 자료 60여점과 현재 전시중인 자료 일부가 포함되는 등 충실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크게 7장으로 나뉘 진행된다. 1~3장에서는 잠녀가 사용하던 물뿔과 물적삼, 물질도구 등이 소개되며 1970년대 이후와 최근으로 나뉘 고무 잠수옷의 변천까지 소개하게 된다. 물질도구의 시대별 변화 과정도 엿볼 수 있게 구성했다.

4~7장은 잠녀 문화를 주제로 꾸려진다. 바다 관리와 마을 어장 규약을 어촌계와 해녀회 단위로 정해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사실과 물질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해 마을 길을 정비하고 학교를 세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제주 어머니로 잠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 자료가 전시된다.



이밖에도 바다 밭에서 얻은 것들로 조리한 음식문화와 제주 동부 지역 잠녀들의 조업 과정과 수중 작업 모습, 신앙·농경 생활을 소개하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부 내용을 보강하기는 했지만 잠녀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불턱이나 해신당 등 생활자료는 일부 사진으로만 전시에 참여하는 등 향후 잠녀 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도지정문화재 작업이 미뤄지며 불턱이나 해신당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된 데다 콘텐츠 개발 작업이 늦어지면서 잠녀 문화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여수엑스포 등에서도 잠녀 복장을 한 안내원 등이 눈길을 끌었을 뿐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잠녀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작업과는 연계시키지 못했다.

특히 불턱 공동체 문화는 물론이고 계성 문화 등 제주 잠녀 특유의 문화는 최근 사회 이슈 등과 연관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방안이 주문되고 있다. 전시문의=061-270-2043(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mailto:popmee@jemin.com)